

울산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실태조사 및 보존방안

이근애 · 이향미 · 신미영
주거환경학전공('02 졸업)

I. 서 론

1. 문제제기

문화재란 전승되어 오는 한 민족집단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상, 학술상, 종교상, 예술상, 관상상, 기타 생활문화의 추이를 가르칠 수 있는 실체로서 우리민족 전체의 정신적 작위에 대한 가치가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정재훈, 1984). 특히 주거건축 문화재는 그 성격상 박물관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보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특별한 보존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우선 주거건축문화재는 그 입지적 성격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지만이 아니라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적 환경은 그 건축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래의 위치에서 보존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주거건축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기본방향이나 개성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 외국의 문화재 보전 정책을 다룬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주거건축 문화재의 보전방법을 다룬 연구의 수는 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전통주거건축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주거건축이라는 문화유산에 대해 울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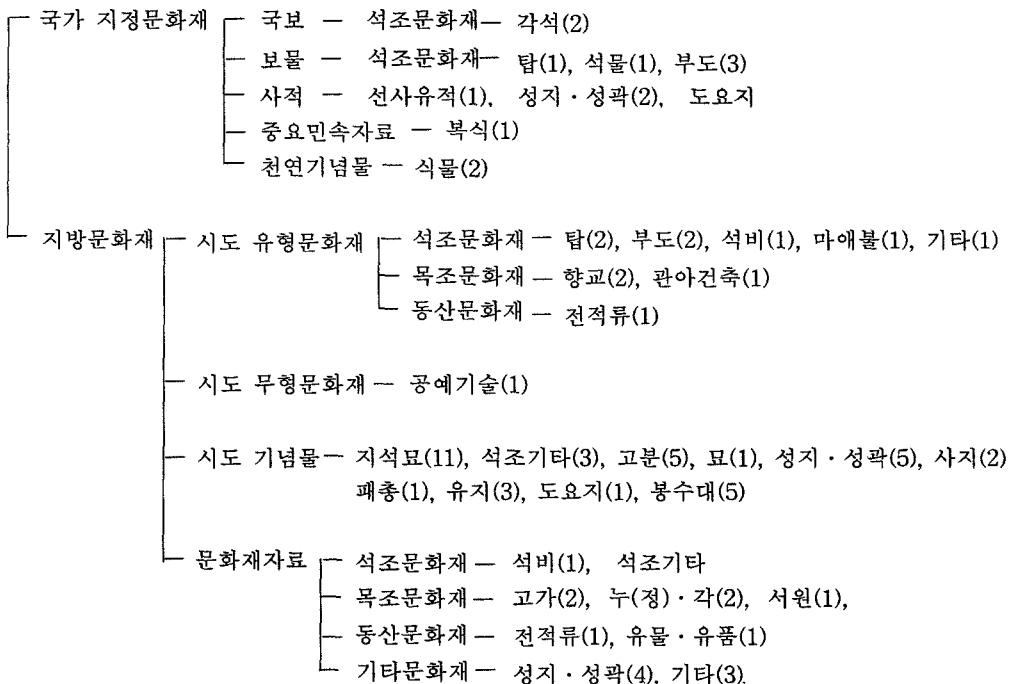
2. 연구목적

첫째,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전통건축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전통주거건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둘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주거건축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함으로써 조사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는다. 셋째, 설측과 면담을 통한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조사대상 전통주거건축의 현황과 보존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전통주거의 보존정책 및 방법에 대해 외국 및 국내사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인 전통주거건축에 대한 보존방안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울산광역시의 문화재

울산광역시는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역에 총 6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 안의 숫자는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

2. 울산광역시의 전통주거건축

1) 울산동현의 내아

울산동현과 내아는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현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지방장관인 고을의 원(元)이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그 밖의 수령(守令)들의 공무를 처리하던 대청이나 집을, 내아는 지방관청의 안채를 말한다. 울산동현은 이조 숙종 7년인 1695년에 부사 김수오(金粹五)가 창건하여 일제시대에는 울산군청의 회의실로, 1962년 울산시가 분립하고 난 뒤로는 울주군청의 회의실로 사용되었다. 군청이 이설한 후에 동현과 내아는 보수 공사를 거쳐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경상남도에 의해 1982년 12월 19일 도 지정문화재로 보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10월 9일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산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소유자는 울산광역시이다.

2) 석천리 이씨 고가

석천리 이씨 고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3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씨

고가는 학성이씨의 파종가 집으로써 조선중기인 영조때 학성이씨의 시조인 이예(李藝)의 11대손 이의찬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고종때에 이르러 이의창의 증손인 이장찬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지고, 1934년에 살림채와 사랑채 등 전체적인 중수가 있었다고 한다. 1985년 경남 문화재자료 제 114호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10월 9일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재 자료 제 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소유자는 학성이씨의 후손인 이유환씨이다.

3) 박상진 의사 생가

고현 박상진은 1984년 12월 7일(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355번지 밀양박씨 승지 시규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제치하 1915년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비밀 결사대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관으로써 주권회복 및 조국광복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17년 2월(음) 김종국의 밀고로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2일 대구에서 처형 순국하였다. 박상진 의사 생가는 1995년 5월 2일 경남 문화재 자료 제 211호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10월 9일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재 자료 제 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소유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준엽씨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문화재 69점 중 전통주거건축 3곳인 울산동현의 내아, 석천리 이씨 고가 그리고 박상진 생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자와 거주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 관찰용 도구

각 채의 실측과 이용실태 및 개보수 현황을 기록한 실측리스트와 관찰용 도구로 카메라, 필름, 줄자, 나침반을 사용하였다.

2) 면접용 도구

면접리스트는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는 3곳의 건물이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별질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공통질문에서는 답변자의 인적사항, 주거건축물의 관리와 용도, 보수공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3. 조사기간 및 방법

1) 예비답사

연구대상인 울산동현의 내아와 석천리 이씨 고가 그리고 박상진 생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2001년 2월 7일~8일에 예비 답사하여 전통주거건축의 위치와 관리인의 실태 등

을 파악하였다.

2) 현지조사

울산동헌의 내아는 3월 29일에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관리인을 통한 면접조사와 실측조사를 하였다. 석천리 이씨 고가는 3월 31일에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관리인인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고 전통주거건축을 실측하였다. 박상진 생가는 4월 5일에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소유주의 친척분을 면접 조사했으며 주택을 실측 조사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면접용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실측조사에서는 관찰용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주거건축의 현황을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전통주거건축들을 예비답사 및 현지답사를 면접용 도구와 실측용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질적인 분석을 기초에 두고 각 전통주거건축의 관리실태와 보존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건축의 특성

1) 울산동헌의 내아

내아는 8간 규모에 앞 뒤 퇴를 붙인 ‘ㄱ’자형의 건물로 온돌방, 대청, 부엌, 누마루를 둔 살림집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온돌방은 3간을 차지하며 대창은 2간으로 우물마루와 연등천장을 가지고 있다. 기둥은 일반 살림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각기둥을 사용하고, 오량가구를 이용한 지붕은 집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그러나 지붕은 전체적으로 팔작지붕이지만 누마루 부분에는 맞배지붕으로 끊어져 어색하다. 그리고 내아는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2) 석천리 이씨고가

이씨고가는 900여평의 대지에 대문채, 사랑채, 안채, 사당채로 구성된 조선 후기의 주거건축이며, 전체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당에 면하는 살림채의 전면이 넓어, 안마당이 크고 개방적인 것과 넓은 뒷마루를 둔 것, 살림채와 부속채 건물들이 ‘一’자형으로 튼 ‘ㅁ’자형 배치를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문채는 3칸으로 작으나 중앙에 솟을대문을 두어 권위를 표현하였다. 양측의 2칸은 각각 광과 방으로 사용되었다. 대문채는 사랑채 담장으로 구획된 넓은 행랑마당을 가지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이 4칸인 홀집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나, 오량가구식 구조와 팔작기와지붕으로 격식을 갖추었다. 또한 둑근 기둥의 머리에는 초익공을 두고 창방과 장혁 사이에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이 집은 조선중기 이전이라면 감히 사용할 수 없었던 둑근 기둥을 사랑채와 안채의 전면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신분제와 가사규제가 해이해진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 주변으로 길게 늘어선 큰 규모의 수장고들은 조선후기 부농계층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으며, 사당의 존재는 종가로서의 기능을 알 수 있다.

3) 박상진 의사 생가

박상진 의사 생가는 전체 4동으로 이루어진 목조기와지붕의 주택으로 전체적으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채는 전체 5칸으로 1칸의 문간을 갖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문간의 대문형식은 평대문이며 맞배지붕으로 홀처마를 가진 3량가구의 소박한 형태이다. 대문채를 이어 들어가면 2칸의 누마루를 갖춘 사랑채가 병렬로 배열되어 있다. 사랑채는 가로4 견의 규모로 3량가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 대청과 사랑누마루의 우물반자와 연등천정, 원형판 대공이 조선후기 상류계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의 중앙의 중문간을 지나면 폐쇄적인 안채영역이 구성된다.

안채는 13칸의 ‘ㄱ’자형 평면으로 배치되었으며 4칸의 부속채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의 배치형태를 갖는다. 안채도 역시 3량가구에 사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지붕은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사용하였다. 안채의 대청도 사랑채의 대청과 마찬가지로 우물마루에 연등천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건물의 외관에서는 부분적으로 현대식으로 변형이 있지만, 내외의 분리가 뚜렷한 배치형식, 사랑채 및 안채의 평면형식 등 여러 건축적 성격을 검토해 볼 때 조선후기 상류계층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2. 관리 및 보존실태

울산광역시 주거건축의 관리 및 보존실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세 곳을 비교해볼 때 관리자 및 관리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동현의 내아는 울산광역시 소유로 관리사무실의 청원경찰이 24시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석천리 이씨 고가와 박상진 의사 생가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저하 및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박상진 의사 생가의 경우는 사랑채는 그대로 두고 안채를 다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문화재와 현주거생활과의 차이로 인한 변형과 훼손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석천리 이씨 고사의 경우는 관리인이 출입통제 외의 다른 관리내용이 없어 문화재의 방치상태로 볼 수 있다.

<표 - 이용 및 관리실태>

		내아	석천리 이씨고가	박상진 의사 생가
이용실태	이용 상황	공원, 문화원 음악회(5월 ~9월)	문화재 견학	임차인 거주(안채)
	주 이용자	인근주민, 유치원생 및 학생, 음악회 관람객	등산객, 학생	학생
	개방 시간	AM 6시 ~PM6시 연중무휴	.	.
	개방 공간	대청 및 실외	실외	실외
	개방 제한 이유	화재의 위험	도난의 위험	.
관리실태	소유주	울산광역시	이유환	박준엽
	관리자	청원경찰 2인	인근주민 노부부	임차가구
	관리 방법	관리사무소	인근 거주 관리	거주 관리
	관리 시간	24시간 교대 근무	.	.
	주관리 행위	24시간 공원 경비, 청소 및 잔디관리 (공공근로 용역), 창호지 바르기	출입 관리	.

<표 - 보존실태>

	보존실태
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지 : 정기적으로 새로 바르고 있으나 이용객에 의한 훼손 상황은 계속되고 있음 * 벽의 낙서 :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제거되고 있으나 미관을 해치고 있음 * 소화기 : 목조건물의 화재에 대비하였으나 기둥에 못을 박아 문화재 훼손이 우려됨
석천리 이씨 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채 : 서적도난 이후 폐쇄시켜 출입을 금하고 있음 * 주 출입구 : 관리인의 집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고가의 이미지를 훼손 * 중문 : 기와가 훼손되고 지붕귀퉁이가 무너져 내림 * 사랑채 창호 : 문살이 파손되어 있고 청소용구가 방치되어 있음 * 사랑채 기단 :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으나 그것마저 파괴되어 있음 * 서까래 : 보수공사 후 기존의 재목과 새 재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함 회벽으로 마감해야 할 부분에 시멘트를 사용하여 이질감을 줌
박상진 의사 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채 :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방안에 온갖 물건이 방치되어 있음 * 사랑채 처마 : 합식으로 덧대어져 있으며, 서까래가 훼손되어 있음 * 안채 :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 부엌문과 대청을 알루미늄 샷시로 보수 * 안채기단 : 테라조(인조석재)로 마감되어 있음 * 담장 : 옆집과의 담장이 무너져 내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전통주거건축 보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함과 동시에 대상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시 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넷째, 전통주거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대적인 주거공간을 전통주거건축에 내재시켜 주거인들의 거주공간을 보장하고 개보수시 최대한 전통적 특성을 해치지 않게 한다.

하지만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주거건축물들은 과거에는 그 용도가 동일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다.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보존방안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거건축물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연구에서는 각 건축물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따른 구체적인 보존방안제시가 요구된다.